지금 무슨 생각해?

지금 무슨 생각해?

발 행 | 2019년 00월 00일
저 자 | 최*원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 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272-0000-0

www.bookk.co.kr
ⓒ 최예원 2019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글 최*원
사진 최*원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해,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질문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저자의 말_

가슴 뛰던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종종 이렇게 나에게 묻곤 합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정신을 차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건 순간입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게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는다면 나의 머릿속에 하나 둘 싹을 틔었던 생각들은 결국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라진 조각들은 다시 쓸어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눈을 크게 뜨고, 찾기 위해 공을 들여도 처음처럼 생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1초 전의 나와 1초 후의 나는 다르고, 그 순간들 속에서 빠르게 뇌리를 스쳐가는 생각들이 손틈 사이로 새어나갈 듯합니다. 하지만 흘러나가기 전, 내가 한 마디만 물어준다면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의 나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내가 느끼는 사소한 감정들도 결국 어느 영역에서는 본인들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기쁨, 커다란 분노, 커다란 설움이 아니라면 그저 그렇게 보내고 맙니다. 언젠가는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르는데 말이죠. 때로는 작은 것도 어루만져주고, 극대화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순간의 감정들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지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타인, 제 3자도 아니고 스스로에게조차 말이죠. 때문에 혼잣말하듯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질 필요

가 있습니다. 간결하지만 정확한 질문.

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해,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질문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이 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횡단하며 마주한 많은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순간의 생각을, 순간의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져주기 위해 부단히 고민했습니다. 과연 저의 순간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밝히게 될까요?

가슴 뛰던 순간들에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그 내면을 어루만져 주세요.

소중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찬란히 빛을 내지 않았던 적이 없는 순간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_ 나보다도 더 나의 순간들을 사랑하고,
나보다도 더 나의 생각을 존중하며,
나보다도 더 나의 감정을 들여다 보아준
나의 사랑하는 사람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글쓴이 최*원
반갑습니다.

떠나보는 길

▌ 저자의 말 – 05

▌ 01 통일? 그냥 살면 안 돼? – 13
▌ 02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곳 – 16
▌ 03 유난히 물이 많았던 날 – 19
▌ 04 희망고문 – 22
▌ 05 막연한 바람 – 25

▌ 06 우리 땅이 될 수 있을까? – 28
▌ 07 모의법정 – 32
▌ 08 찰나의 순간 – 35
▌ 09 scenario – 38
▌ 10 지식을 지혜로 만드는 길 – 60

사진 _ 중국 (中國) –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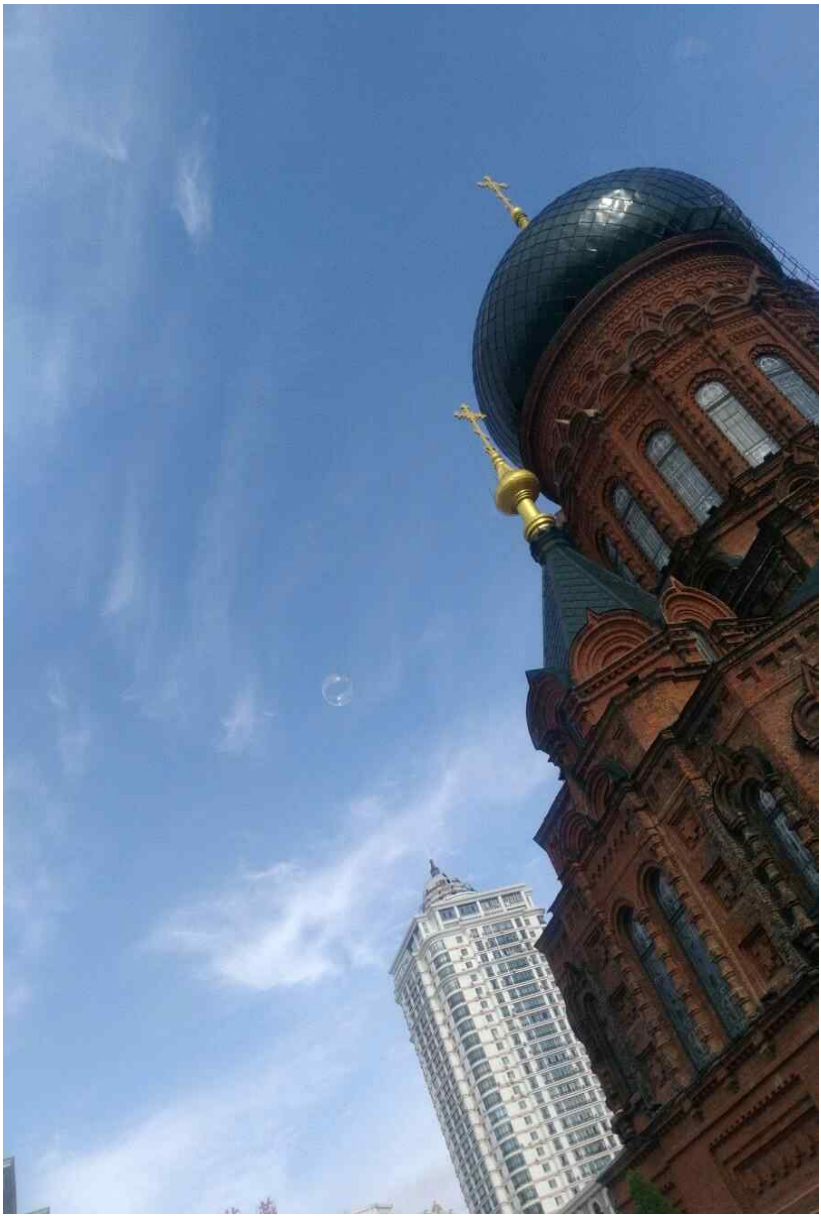
▌11 서러움의 감정 – 71
▌12 견고해지려 감수했던 아픔 – 75
▌13 별을 헤아리다, 마음을 헤아리다 – 78
▌14 안녕하세요! 용기 내어 건넨 인사 – 82
▌15 2/100의 기회 – 85

▌16 작지만, 가장 커다란 나무 – 90
▌17 우리 다시 만나 – 92
▌18 안중근 의사님께 닿기를 – 97
▌19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 100
▌20 물을 주는 가장 적절한 시기 – 105

사진 _ 러시아 – 107

▌맺음말 – 116

Вокзал Владивосток
Station Vladivostok



01

통일? 그냥 살면 안 돼?

“통일? 그냥 살면 안 돼?”
“왜?”
“그냥, 지금도 딱히 불편한 거 없이 살고 있잖아.”
“그건 그래, 근데 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 도와줘야 되잖아.”
“그거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통일하면 우리한테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다.”

위 대화는 결코 지어낸 말이 아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통일'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순간 쏟아지는 말들이다. 나는 이도 저도 아니었다. 늘 중립 기어에 머물러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후퇴하지도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자동차처럼.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와 동시에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도 마찬가지라 여겼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겠지, 그런데 통일이 되면 정치적 대립, 경제적 부담의 문제는?' 등과 같은 전혀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이유 등으로 통일을 바라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던 내 자신이었던 것이다.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멈춰 있었던가? 아마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누군가 내게 답을 내려줄 거라고. 시간이 또는 사회가 해결해 줄 문제라고. 그렇게 의미 없는 기다림 속에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다. 분단된 국가의 사회 구성원이 정작 글쓴이 본인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로.

스스로 늘 열심히 살아왔고, 나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착 마주해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있었다. 그렇게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체화시키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를 만났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 글쓴이가 갔던 장소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해,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물었던 것.

"지금 무슨 생각해?"

02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곳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라니,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이 아이러니가 늘 살아 숨 쉬는 곳,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이다. 한반도 속에서 살면서도 분단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느끼기보다는 이미 익숙해져버린 우리가 아닌가.

익숙함 속에서는 새로움을 발견하기 어렵다. 새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나날들을 맞이할 뿐이다. 그렇게 분단된

오늘을 보내고 분단된 내일이 찾아올 것이었다.

깨우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렇게 조금은 긴장되는 듯해 몸도 마음도 유연하지만은 못한 상태로 파주 임진각을 찾아갔다. 전쟁 전 철교의 형태를 재현한 곳을 거닐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보았다.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탓에 관광용 인도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여전히 분단의 현실보다는 비가 와 조금 습하고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것이 더욱 신경 쓰이는 순간들이었다. 그 때 '독개 다리'를 보았다.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끊어져버린 다리는 총알자국이 선명히 남아 분단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조금만 더 간다면 북한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 철도를 복원하지도,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

이게 분단의 현실이었다. 조금만 상처가 나도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인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진지 74년이 다 되가는데도, 상처가 깊어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방치하고

있다. 그렇게 곪아가다 아무는가 싶다가도 한 번 상처가 낫던 곳은 다시 상처가 생기기 쉽다. 악순환이 반복되다 결국 깊게 파인 흉이 져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리라.

글을 쓰다 오타를 발견하면 누구보다 빨리 지운다. 혹여나 다른 부분도 틀렸을까 괜히 점검해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 분단이 오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타를 지우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두 부류이다. 틀린지 몰라서, 그리고 귀찮아서. 분단이 길어질수록 아물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안 이상 어떤 이유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습한 바람이 코로 들어오고 피부에 닿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 곳에 서 있는 이상 그것들은 결코 '날씨' 그 자체에 지나지 않았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아이러니의 기운이 내 주변을 감싸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03

유난히 물이 많았던 날

대장정을 시작한 첫 날부터 비가 많이 내렸다. 학교에서 학생으로 지내는 날이 많다 보니 비가 오는 날에도 늘 실내에 있었다. 비가 오면 메말랐던 땅에 비가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어두운 것 같은 밝기, 크게 말하면 살짝 울리는 느낌 모든 게 좋았다. 해가 짱짱하게 뜬 날보다 조금은 차분해진 것 같은 교실 분위기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주로 “아, 또 비 오네”, “습해” “찝찝해”와 같이 간결하고 짧은 말들로 투정을 부 리며 비 오는 날을 유난히 싫어하는 친

구들도 많았지만 말이다.

때문에 첫 날부터 비가 왔다고 해서 내 기분은 달라질 것이 없었다. 오히려 약간 들떠 있었다. 뜨거운 태양 빛을 받아 반짝 반짝 빛나는 나뭇잎이 그려지는 봄과 여름 사이의 분위기가 첫 날을 맞이해 줬으면 하는 친구들은 다소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빗소리를 들으며 파주 임진각에 도착했고, 하나 둘 파란색, 노란색 우비를 입으며 버스에서 내렸다. 왠지 모르게 버스에서 내리자 비가 오는 날을 즐기던 내가 아니라 빗방울 속에서 많은 생각에 잠겨 찡그리지도 웃고 있지도 않은 내가 서 있었다. 조금은 무거울지도 모르는 현실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라보고 있으면 아픈 역사가 떠오르는 임진강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유난히도 오늘은 주변에 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뭘 그렇게 말하고 싶은지, 열심히도 쏟아질까, 멈추지 않고 흐를까.

도로의 주변에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가랑비를 맞고 있는 논이 있

었고 그 위에는 하얀 새들이 날아다녔다. 너무도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평화로움이 분단의 아픔을 더 극대화시키는 듯 했다. 경건해진 분위기 속 해설사의 말 이외의 대화들은 수그러들어 조용해진 공간은 고요함보다는 적막함의 표현이 더 적절했다. 내가 잠시 느끼는 이 적막함이 저 끊어져 있는 철도에게는 일상일 것이다. 많이 외로울 것이다. 그래도 끝이 보이는 외로움은 견딜 만 하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을 홀로 견디고 있는 저 철도가 달리는 기차의 진동을 느끼는 날이 오기를.

04

희망고문

하루에 남북 간의 관계에 관한 뉴스는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진다. 북한이 진행한 핵 활동,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남북 협상, 군사 협의에 관한 기사 등 분단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상 늘 주의를 둘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다. 그리고 이 기사들 속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 '통일'이다.

이런 기사들을 접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최소한 나는

‘받아들인다.’ 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무딜 정도로 덤덤하다. 태어났을 때부터 분단된 시대에 살고 있었고 분단되지 않은 국가에서 살고 있는 나를, 우리 가족을 상상해본 적이 없다. 언제 핵이 떨어지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두려움보다는 익숙함이 앞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익숙함에 가로막혀 진정 고통 받는 사람들이 어느 문턱 뒤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바라보지 못 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무딘 하루들을 보내며 살아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통일’에 관심이 없던 나마저도 지난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손을 맞잡았을 때 평소 크게 바라지도 않았던 ‘통일’을 기대했다. 통일시대 속에서 살게 될 우리들을 기대했다. 가족의 생사마저 늘 확실치 않고 보고 싶어도, 목소리 한 번 듣고 싶어도 그저 가슴에 누르고만 살아가야 하시는 분들은 이 때 얼마나 두근거리셨을까. 그렇게 서로에게 한 발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두 발 뒤로 물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 순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좌절된 만남의 꿈들이었을지언정 남북에 관한 뉴스 한 마디, 기사 한 줄이라도 뜨면 어느새 다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하루하루가 감당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사실 과거형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좌절과 희망이라는 경계에서 희망의 끈을 조금 더 세게 쥐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말이다.

우리가 하나일 수 없어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아님이 익숙해서 나뉘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잔인하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다행이라고 여기니까 말이다. 사실은 '익숙함'을 버릴 생각이 없는 것이 불가능보다 무서운 것일 텐데. 이것이 바로 '희망고문'이다.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익숙함'만을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는 것, 우리가 그분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된다.

오늘 새로이 만들어 간 통일의 길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잘못된 방향이 아니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 원점으로 되돌아오기도 힘든 길이 아니었기를. 우리가 잡고 있는 희망의 끈이 끊어져 희망'고문'의 끈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보고 싶은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그 체온을 느끼며 그것이 원망이든, 울분이든, 그리움이든 무엇이라도 터뜨려 꺼내놓고 소리 내어 울다가 지쳐서 잠드는 날이 머지않아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지녔던 분단의 '익숙함'부터 밑바닥까지 꺼내 놓아야겠다.

05

막연한 바람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참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국력이 강한 나라에서 살기를 바랐다.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고, 세 나라 모두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인은 선진국의 문화를 따라가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고, 알게 모르게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다른 나라에게 위협받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는듯하면서 흔히 말하는 '헬 조선'을 한 번

씩 툭툭 뱉곤 했다. 그랬던 내 자신은 아마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 만족하지 못 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부분에 불만을 느꼈던 것일까?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도 나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세상이, 내가 살고 싶은 국가가 정확히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10년 후면, 15년 후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과학적 흐름에 근거한 미래에 대해 배우고, 생각했을 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려내는 미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데 말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다른 나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나라, 부당한 역사 또는 현재에 대하여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나라 그것이 국력이 강한 나라였다.

우리나라는 IMF라는 큰 외환위기를 겪어 어느 한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단합하고 합심하여 아주 단기간에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버티기 위해서라도 국력을 키워야 하며, 과거 전쟁 시기로 돌아가는 상황이 다시는 찾아와서 안 된다. 그래서 생각했다. 더 이상 통일은 어느 일부 세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고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라고 말이

다. 나는 이제 그 숙제에 책임감을 느끼려 한다. 과거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질문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내가 서 있던 곳은 731부대였다. 잔인한 생체실험을 통해 의학을 발달시키고 노벨의학상과 노벨화학상까지 받은 일본은 결코 그들의 비인도적 잔학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고 있다. 당시의 상황은 전쟁 중이였고, 전쟁 중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731부대의 생체 실험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쟁 시기에 저지른 비인도적인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시작이었다.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던진 질문으로서 말이다.

06

우리 땅이 될 수 있을까?

대장정의 일정 중 송화강에 가 케이블카를 탈 기회가 있었다. 조금은 힘든 여정 속에서 케이블카를 탈 생각을 하니 들뜬 마음이 더욱 컸던 순간이었다. 그러다 이 곳이 우리의 옛 역사와 아주 연관이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냥 들떴던 마음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기 시작했다. 송화강 위를 건너는 케이블카에서 내려 송화강 앞의 모래를 밟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였다. 그 퍼석거리는 촉감과 소리가 유난히 귀에 와 닿았다. 다른 역사가 기록되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곳이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흐르는 강물이, 얕은 모래가, 들려오는 소리들이 모두 아련하게 느껴졌다.

대장정을 진행하며 모든 학생이 자신이 맡은 역사적 사건을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었다. 내가 맡은 역사적 사건은 이 날 갔던 송화강에 뿌리를 둔 '간도협약'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돌아간 버스 안에서 '간도협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시작했다.

간도는 본래 두만강 중간의 비옥한 삼각주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19세기 말 이주한 한인들이 점차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을 개간하면

서 한인들에 의해 개간된 땅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한반도의 경제 사정이 열악해지자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많은 조선인들이 간도 지방으로 이주했고, 이로 인해 청과 조선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청은 만주족의 발흥지인 간도를 봉금지로 정하여 우리 민족의 이주를 막았지만, 간도는 이미 19세기 말에 십여 만의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그 곳 농토의 80%이상을 개척하는 등 실질적인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이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처음에는 간도를 자신들이 관리한다고 하여 통감부에 간도 파출소를 두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독립 운동을 억압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일본은 일단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철도 부설과 탄광 개발 등 만주에서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1909년에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에 항거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하여 간도는 청산리대첩과 봉오동전투 등 항일무장투쟁의 거점이 되었고, 그 후로도 우리 민족의 삶의 무대로서 민족 독립 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간도의 역사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을사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늑약이므로 그 늑약을 체결한 주체에 의한 간도 협약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과

제 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 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은 침탈했던 나라들로부터 구축된다고 명시했으므로 간도 협약도 무효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간도협약을 공부하고 또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간도협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내가 마주했던 그 곳이 우리 땅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국제조약의 역사적 오류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을 때, 중국과 영토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은 국력을 향상시켜 다른 나라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간도가 우리 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국력을 향상시킨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의 지름길은 통일이 될 것이다.

07

모의법정

처음 이 대장정에 참여하며 주제탐구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생각하다 모의법정을 계획했었다. 어릴 때부터 나의 오랜 장래희망은 '검사'였고, 다양한 직업에 매력을 느낀 적은 많았지만 검사라는 나의 꿈에는 변함이 없었다. 내가 검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했고, 스스로에게 잘 맞는 직업인지, '어떤' 검사가 되고 싶은지 늘 고민했다. 때문에 모의법정 활동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사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채 주제탐구프로젝트는 막연한 계획이자 바람이었다. 합격한 후 첫 만남에 우리는 다양한 동아리활동 중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댄스, 합창, 러시아 전통 춤, 기악 등 다양한 선택지 중에 모의법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실망으로 다가왔었다. 그렇게 나의 동아리 활동으로 합창을 선택하고 1차 캠프는 끝이 났다.

그러던 중 모의법정 동아리의 소식을 마주하게 되었다. 모의법정에 지원하는 나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또한 있었다. 어떤 검사가 되고 싶은지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조금 이상적이고 추상적일 답변일지는 몰라도 '정의가 힘을 갖도록 하는 검사'가 되고 싶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었다. 어릴 적부터 블레즈 파스칼의 '힘을 갖지 못한 정의는 무력하며, 정의가 없는 힘은 폭군적이다. 우리는 정당한 것을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명언을 좋아한 영향이었다.

모의법정에 열정을 지녔던 나는 팀장을 자처했고, 조금 더 큰 책임감을 지니고자 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피고인, 배심원 등 재판에 필수적인 다양한 구성원 중 검사의 역할을 맡고 싶었던 것은 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지만 1가지 망설여지는 부분

이 있었다. 이번 모의법정에서 그려낼 검사는 내가 꿈꾸는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를 비판 아닌 비난하며 유죄라 주장하는 검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검사의 역할을 선택했고 이 선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검사의 직업을 경험해본다는 것, 그 자체에 의의는 존재한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만약 내가 부정의를 위해 힘쓰는 검사 역할을 맡는다면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어떻게 기소하고 대응해야 옳은 것인지, 즉 정의 실현을 위해 내가 되어야 하는 검사는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부터 당찬 포부를 가지고 나의 모의법정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08

찰나의 순간

초등학교 3학년, 언니를 따라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어린아이에게는 6주라는 시간이 길고 길었다. 그 때의 기억을 되새겨보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언어로 대화하며 사는 것이 때때로 재밌기도 했지만 힘든 순간이 더욱 많았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적응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을 말이다. 하나 더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힘들 때는 모르지만 지나가고 나면 아는 것이다. 바로 '시간은 흐를 것이고, 이 순간 또한

지나간 시간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학연수를 가서 배운 것이 영어보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웃음이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2012년 필리핀에서의 추억을 떠올려보면 숙소 옆 필리핀 바다가 나를 마중 나온다.

저녁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는 노을이 지고 있는 불그스름한 빛이 내 눈앞에 아른거린다. 방금 막 씻었는데도 워낙 습한 바람에 금세 끈적거리는 팔이 자꾸 신경 쓰인다. 이런 찰나의 순간이 내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추억이 되고 그 때의 생생한 기분을 안겨다 준다.

이번 중국 관동법원에서 진행한 모의법정도 마찬가지였다. 하얼빈에서 대련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곧 진행할 모의법정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손에서 대본을 놓을 수 없었다. 수도 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대사와 어조, 제스처 모든 것이 마치 처음 연습하는 것처럼 떨렸다. 설레는 마음보다 떨리는 마음으로 향했던 관동법원에 들어서고, 무거운 공기가 내 주변을 감쌌다. 안중근 의사님이 실제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던 곳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기차역에서 내릴 때만 해도 무거운 가방과 더운 날씨 때문에 약간은 투정 섞인 목소리로 장난도 치던 친구들이 금세 조용해지고, 많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렇게 시작된 모의재판. 검사의 기소가 이어질 때는 안중근 의사의 죄목을 나열하며 흔들림 없이 견고해야 했다. 이에 따른 죄책감도 조금씩 밀려왔다. 기소가 끝나고, 증인 심문이 끝난 후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조그마한 움직임이나 뒤척임도 만들 수 없었다. 선풍기, 에어컨 그 어떤 것도 없었고, 꽉 막힌 공간은 더운 공기로 가득 찼으며 검사 복장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게 했다. 하지만 흐르는 땀을 닦을 수도 없었다. 그냥 그 곳에 앉아있는 내 자신은 한없이 1910년의 재판당시를 떠올리고 있었다. 내 앞에 앉아있는 피고인이 정말 안중근 의사님이라면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떨어지는 땀을 닦으며 더움을 내색할 수 없었다. 결국 모의재판을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하던 과정보다 그 때 내가 느꼈던 감정, 땀을 닦을 수 없었던 그 심정이 이 날을 상기시키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이것이 '찰나의 순간'이었다.

실제 재판에서 안중근 의사님은 유죄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우리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 냈다. 외로우실 수밖에 없었던 당대 현실에서 벗어나 그 넋을 후손으로서 위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했는데 그 날의 모의재판이 이 바람을 실현시켰으면 한다.

09

Scenario

논 제 : 누가 죄인인가?

법정토론 취지 : 역사적 현장에서 110년 전 재판을 재연하고, 일본법정의 허구를 파헤쳐 안중근 의사의 무죄 판결 및 일제의 죄상을 논하고자 함.

참고 도서 :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재판 일시 : 2019년 7월 27일

재판 장소 : 중국 관동법원

재판 과정 : 약 40분

01. 재판장 개정 선언 및 피고인 확인

02. 검사 측 기소문 (공소장)

03. 변호사 측 변론

04. 검사 측 피고인 심문

05. 검사 측 증인 심문

06. 변호사 측 증인 심문

07. 판사 피고인 심문

08. 검사의 구형

09. 변호사 측 최후 변론

10. 피고인 최후 진술

11. 배심원 토론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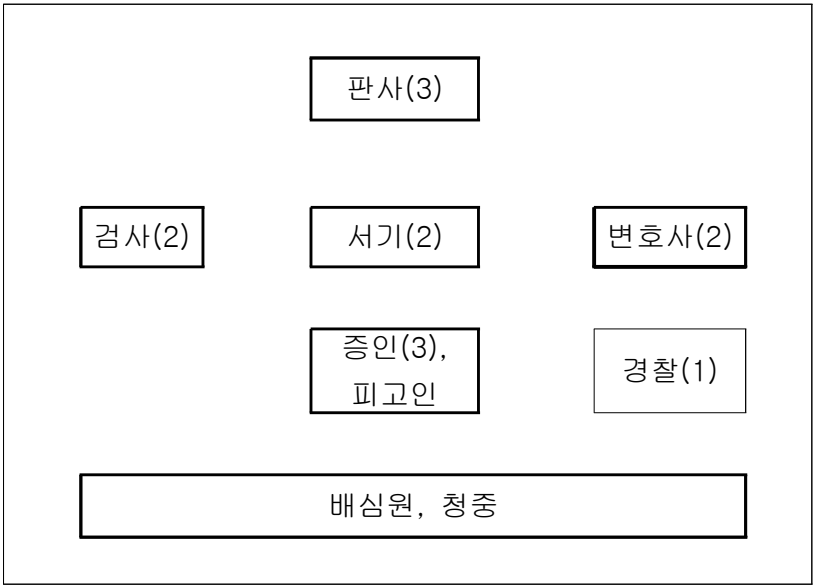
12. 청중 토론 (질의응답)

13. 배심원단 평결

14. 판사의 최종 판결

15. 재판장 폐정 선언

✓ 자리 배치



✓ 역할 분담

01. 판사 1 : 강*림
    판사 2 : 김*성
    판사 3 : 김*별
02. 검사 1 : 최*원, 검사 2 : 김*유
03. 변호사 1 : 김*예, 변호사 2 : 김*연
04. 피고인 (안중근) : 이*성
05. 증인 1 (채가구역장) : 홍*찬
    증인 2 (유동하) : 류*헌
    증인 3 (우덕순) : 윤*주
06. 배심원 1 : 마*영
    배심원 2 : 홍*희
    배심원 3 : 김*준
07. 서기 : 조*지
08. 경찰 : 박*영
09. 청중 1 : 박*지
    청중 2 : 오*진
    청중 3 : 김*민
10. 팀장 : 최*원

(재판관들 등장)

서기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관들 자리에 앉는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판장 개정 선언 및 피고인 확인

판사 1 : 사건번호 제1909 10 26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은 유죄인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치 3번) 피고인 안중근은 피고인석으로 나오세요.

(경찰이 안중근을 피고인석으로 인솔한다. 안중근 착석 후)

판사 1 : 피고인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을 말하시오.

피고인 : 나의 이름은 안중근이고, 나이는 31살이며, 최근까지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었다. 나의 직업은 조선의병 참모중장이다.

판사 1 :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의견을 듣겠습니다. 검사 측 기소하세요.

② 검사 측 기소문 (공소장)

검사 1 : (일어나 앞으로 나서서) 지금부터 검사 측 기소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 안중근에게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를 적용하여 기소합니다. 피고는 우덕순 등과

함께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공을 살해할 목적으로 모의하였습니다. 피고는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이토 공을 살해하였으며 관계도 없는 일본인들까지 상해를 입힌 위험한 자입니다. 사건 당일 피고 안중근은 미리 준비한 권총으로 이토 공을 향해 3발을 저격하여 살해하였고,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하여 주변에 있던 가와카미 총영사 등을 향해 총상을 가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검사는 피고에게 살인죄, 상해죄를 적용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비가 궁하자 의병이라는 명분으로 전 황해도 의병소장인 이석산에게 100루블에 달하는 거금을 협박으로 강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검사는 피고에게 강도죄를 적용하는 바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본 검사는 피고인 안중근에게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로 기소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다음으로 변호인 변론이 있겠습니다. 변호인 반론하세요.

③ 변호사 측 변론

변호사 1 : (일어나 앞으로 나서서) 재판관 각하게 두 가지 점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하께서는 사람을 죽인 피고 안중근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습니다. 또 살인자인 피고 안중근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셨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에 앞서 해결할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본 사건이 일어난 곳은 러시아

하얼빈이고 청나라 영토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고에게는 일본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고유의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일본제국 관리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피고 안중근에게 한국 형법을 적용하여 일본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형법에는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해 마땅한 규정이 없어 처벌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무죄'라고 변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 : 다음으로 검사가 피고인을 심문할 차례입니다. 검사, 피고인 심문하세요.

④ 검사 측 피고인 심문

검사 2 : (일어나 앞으로 나서서) 피고 안중근은 이토를 죽였다. 인정하는가?

피고인 : 그렇다.

검사 2 : 살인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 나는 일개 자객이 아니다. 나는 일제와 전쟁을 수행하는 대한의병이다.

검사 2 : 이토공은 대한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줬는데 왜 그랬는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가 죽자 이에 앙

심을 품고 한 일임에 틀림없다.

피고인 : 나는 개인적인 앙심으로 이토를 처단한 것이 아니다. 이토는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빼고 주변국과 전쟁을 벌여 조선의 강토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국민으로서 저항한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검사 2 : 살인자가 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다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때문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 : 이토는 조선의 강토를 전쟁으로 물들였고 이로 인해 수십만의 무고한 목숨을 죽였다. 누가 살인자인가? 또 이토는 계획적으로 전쟁을 모의하고 주권을 짓밟았으니 더 악질적이다. 누가 살인자인가?

검사 2 : (회피하듯) 피고는 영웅인 듯 행세하지만 알고 보면 사이비 정치인이다. 그 예로 피고가 이석산으로부터 여비를 강탈한 것이 있다.

피고인 : 나는 삼천만 동포를 등에 지고 의거를 결행했다. 삼천만이 나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내가 동지의 이름이나 자금원을 말할 수 없다고 강도로 누명을 씌우지 말라.

검사 2 : 이상입니다.

판사 : 지금부터 증인 신청과 심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검사 1 : 예 있습니다. 채가구 역장 오그네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 변호사측에서도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변호사 1 : 예 있습니다. 우덕순과 유동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 검사와 변호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합니다. 먼저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 채가구 역장 오그네프는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경찰이 역장을 증인석으로 인솔한 후, 착석시킨다.)

판사 : 검사 측 증인을 심문하십시오.

⑤ 검사 측 증인 심문

검사 1 : (일어나 앞으로 나서서) 검사 측 증인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오그네프 역장, 그대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우덕순과 유동하를 가르키며)

역장 : (증인석에 착석한 채) 예, 압니다.

검사 1 : 누구죠?

역장 : 우덕순과 유동하입니다.

검사 1 : 역장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 역으로 와 러시아 대신을 만나기로 되어있던 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역장 : 경유지인 채가구 역에서 경계를 담당했습니다.

검사 1 : 그렇다면 그 때 이들을 본 것입니까?

역장 : 예, 이들이 역에 와서 열차시간을 묻고 역에서 친척들을 대기한다며 하루 밤을 머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1 : 당시 증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역장 : 이들이 하얼빈 역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수상하게 여겨

보초를 붙여 감시를 했습니다. 그 후 상부에 보고하고 역에서 못 나가게 가두었습니다.

검사 1 : 그렇다면 그들 무리 중 하얼빈 역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역장 : 예, 세 명 중 한 명이 10월 25일 밤 하얼빈 기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안중근을 가리키며) 바로 저자입니다.

검사 1 : 역장! 당신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안중근이 그날 밤 하얼빈으로 가지 못하게 체포해야만 했습니다.

역장 : 나는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한마디 하건대 일본 검사가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사 1 : 이상입니다.

(경찰 역장을 인솔하여 퇴장시킨다.)

판사 : 변호사 측 증인을 심문하십시오.

⑥ 변호사 측 증인 심문

변호사 1 : (일어나 앞으로 나서서 유동하에게)
유동하 증인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유동하 : 19세입니다.

변호사 1 : 어린나이인데 어떻게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까?

유동하 :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약재를 사러 가는 길에 안중근 선생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1 : 안중근이 암살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유동하 :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서 몰랐지만 느낌으로 큰일을 하시는 것은 짐작했습니다.

변호사 1 : 증인은 나이가 어리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어떠합니까?

유동하 : 무슨 소립니까? 나라를 잃었는데 독립운동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또한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사 1 : 요즘 청소년은 버릇이 없습니다.

유동하 : (예의 바르게) 이토가 전쟁을 벌이고 나쁜 짓을 했으니 버릇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1 : 이상입니다.

(경찰 증인 인솔하며 퇴장시킨다.)

⑦ 판사 피고인 심문

판사 1 : 피고에게 몇 가지 심문하고자 한다. 피고, 언제부터 연해주에 왜 거주하기 시작했나?

안중근 : 3년 전 고향을 떠나 이 먼 타국으로 온 것은 일제가 1905년 을미늑약, 1907년 정미조약을 체결하여 대한국의 주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요.

판사 1 : 그대는 고향을 떠나온 이래 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안중근 : 한국의 교육에 힘쓰고, 한국의 의병으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연설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고취했소.

판사 1 : 그대가 조국을 위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목표는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안중근 : 이토는 일본에서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통해 우리 대한의 백성들을 우롱하고 기만했소. 그래서 나는 이 자

를 없애 오늘날 슬픈 지경에 빠져 있는 조국을 구하고자 했소.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독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기에 포살한 것이오.

판사 1 : 일본은 대한제국의 발전을 도와주었는데 피고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안중근 : 본래 우리 대한은 4천 년 이래 무력을 내세운 나라가 아니라 문장으로 세운 자주국이요. 두 조약은 무효요. 왜냐하면 한국의 황제가 옥새를 찍지도 않았고, 이토가 칼을 겨눠 강압적으로 체결했소. 이에 분개한 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10만 명이 넘는 의병을 죽여 머리 가죽을 꿰어 매달았소. 강제조약이후 일본은 조선에서 광산채굴, 식량수탈, 등 막대한 이익을 챙겨 일본으로 빼돌렸소. 이것은 식민지 수탈이요.

판사 1 : (어물거리며) 어쨌든 본 법정은 러시아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심리를 진행하고자 한다. (종이를 보여주며) 여기 관련 증거 서류가 있다.

안중근 : 내가 거사를 일으킨 곳은 하얼빈 역이오. 하얼빈 역은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고, 청나라 땅이기도 하오. 내가 일본 법정에 설 이유가 없소.

판사 1 : 러일전쟁, 청일전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패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협조를 잘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전체를 차지할 것이고, 미영일 동맹이 튼튼하다. 아무도 일본을 대적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은 일본법정에서 취급한다.

안중근 : 나의 거사는 일개 살인사건이 아니오. 일본법정은 권한이 없으며 만국공법에 따라 전쟁포로로 대우하고 처리하여 주기 바라오.

판사 : 검사 측 최종적으로 피고에 대한 구형을 해주세요.

⑧ 검사의 구형

검사 2 : 피고 안중근의 범행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안중근은 완고하고 미혹한 상태에서 반일 신문과 논객들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따른 결과, 한국의 은인 이토 공을 원수로 여겨 그가 과거에 베푼 은혜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초대통감 이토공이 나라를 뺏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위해 이토 공을 살해했다고 우기면서 암살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일개 살인자일 뿐입니다. 또한 이 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치와 관련 있다고 하지만 결코 정치범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피고가 하얼빈에 올 때 여비가 궁하자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석산이라는 자에게 100루블을 강탈하였으니 과거에도 분명히 강도짓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비 정치범이 소중한 생명을 살상한 것은 인도적으로 보아도 불상사 입니다. 따라서 일본국법이 있는 이상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일본형법의 본질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검사는 안중근에게 사형을 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사 : 변호인 측 최종변론 해주시길 바랍니다.

⑨ 변호사 측 최후 변론

변호사 2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한국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형법의 결함은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처단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안중근에게 본 변호인은 "무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관의 주장대로 일본 형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본의 형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복주의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헤아려 줄 수 있는 법이기에 살인을 저지른 안중근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안중근은 한 개인으로서 대한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학살의 원흉인 이토 공을 죽였다고 합니다. 의병으로 나섰다 참혹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오로지 나라와 동포를 위해 죽겠다는 신념에서 자기 몸과 가족을 버리고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 변호인은 중근이 무지해서 이토공이 조선을 도와주려고 을미조약, 정미조약을 체결한 것을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와 오해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련하기 짝이 없지만, 증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르쳐 주어 일본의 정책을 도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피고는 목숨을 잃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도 않는데, 만일 벌을 주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조선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저항해서 일본의

통치에 지장을 많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토공작도 이 무지하고 가련한 사람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원치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형법 제199조에 의거하여 안중근에게 징역 3년만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⑩ 피고인 최후 진술

판사 1 :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안중근 : 나는 할 말이 많소. 첫째, 이번 거사는 국제적인 사건인데도 검찰관의 심리가 허술하고 오류 투성이오. 재판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했소. 일본 변호사는 한국에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엉터리로 변론하지 않았소? 또한 한국에서 온 변호사들에게는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소. 매우 편파적이오. 둘째, 이번 재판에서 모두들 이토가 조선에 한일은 완전무결한데도 내가 오해했다고 하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오. 나는 이토의 방침을 모두 꿰뚫고 있소. 을사늑약, 정미조약으로 일제는 조선의 자주권과 외교권을 강탈하지 않았소? 이토의 죄악으로 한국인은 도탄의 고통을 받고 있소. 심지어 내가 만난 일본농부, 군인들도 이토 때문에 가족을 떠나 전쟁을 치르는 고통에 괴로워했소. 셋째, 내 희망은 대한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오. 나는 의병참모중장 자격으로서 일본과 전쟁 중이며 그 이유로 이 재판정에 서 있

소. 따라서 일본형법이 아니라 만국공법으로 처리되기를 바라오. 나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을 결심하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다만 나의 죽음이 동양평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랄 뿐이오.

판사 : 그럼 이제부터는 배심원단의 질의가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⑪ 배심원 토론 (질의응답)

배심원 1 : 판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중근을 뤼순의 일본 법원에서 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사 : 안중근이 일본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배심원 1 : 안중근이 이토를 처단했던 장소인 하얼빈 역은 러시아의 조계지였습니다. 조계지에서는 외국인에 한해 치외법권을 인정받으므로 이 사건은 러시아가 관할해야 합니다. 일본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판사 : (을사조약으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배심원 1 : 을사늑약은 고종 황제의 옥쇄나 동의 없이 을사오적과 일본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조약입니다. 따라서 이 조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판사 :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조약이니 따라야 한다는 내용)

배심원 1 : 조선의 3000만 국민이 분노하여 반대하고 있고, 이것은 의병활동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유효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심원 2 : 검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짜 죄인은 누구입니까? 이

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죄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 2 : 이토는 조선을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한 것입니다.

배심원 2 : 이토의 죄상을 말해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95년 한국의 명성 황후를 시해, 한국 고종 황제를 폐위시켰습니다. 또한 일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는 5조약(을사조약)과 7조약 (정미조약),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외교권과 자주권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 광산과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았고,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한국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키며 교과서를 압수하고 불태우는 등 교육받을 권리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에서 일어난 의병들과 무고한 한국인들을 일본 군대가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야말로 동양 평화를 깨뜨리는 역적이 당연한데, 이토는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를 속이고 한국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태평무사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야말로 동양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 아닙니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한국과 일본, 동양의 사람들은 도탄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검사 2 : (침묵)

배심원 3 : 변호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안중근을 일본 형법에 적용하여 일개 살인범으로서 변호를 하였습니다. 한국인을 일본 형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리에 맞습니까?

변호사 2 : 조선에는 관련 형법이 없어서 일본법을 따른 것입니다.

배심원 3 :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전중 벌어진 사건일 뿐이므로 살인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중근은 한국 의병참모중장이고, 이토 히로부미는 군사권을 지닌 통감이었으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변호사 2 : (이토의 신분이 당시 일반인이었음을 주장하며 안중근은 일반 살인자라고 주장)

배심원 3 : 이토는 조선 통감에서 물러났지만, 아직 추밀원의 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하얼빈을 방문했던 이유가 한반도와 대륙침략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것이 교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⑫ 청중 토론 (질의응답)

청중 1 : 판사에게 물어보기 전 청중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변호를 들었을 때 변호인단의 변호가 안중근 의사를 변호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변호사니까, 변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것처럼 보입니까?

변호사 1, 2 : (...)

청중 1 : (판사를 바라보며) 판사에게 묻겠습니다. 청중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은 증인을 심문할 때 오히려 증인을 협박하고 증인의 답변을 회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하는 태도에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하였는데, 이 변호가 옳은 변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청중 2 : 변호인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인단 두 분 중 한 분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징역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데 왜 두 변호인의 주장이 다른 것입니까?

변호사 1, 2 : (변호인단이 서로의 주장과 근거를 말함)

청중 2 : 두 변호인은 각자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두 분의 발언은 모순적이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정확한 변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변호사 1, 2 : (....)

청중 2 : 이상입니다.

청중 3 :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이 8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살인사건, 그것도 일본의 거물급 인사에 대한 살인사건임에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안중근을 재판하였습니다. 8일 동안의 짧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본 변호인들은 피고 안중근에 대한 변호를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변호사 1, 2 : 네

청중 3 : 변호인 말대로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 간의 구형량과 안중근에 대해 적용하는 형법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호사 1, 2 : (침묵)

청중 3 : 변호란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피고인 안중근에 대하여 변호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찬양하며 편파적인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모호한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본 변호인들이 변호인으로서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배심원단의 토론이 끝났으면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⑬ 배심원단 평결

배심원 대표 : (평결문 낭독) 배심원단은 다음과 같이 평결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우리 배심원과 청중은 다음과 같이 일치된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은 이 사건을 일본법정에서, 일본형법을 적용하여 법률사상 초유의 오류를 범했다. 일본법정은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다. 둘째,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고,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켜 평화를 파괴했다. 이토의 죽음은 스스로 저지른 죄악의 결과이며, 진짜 죄인은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제국주의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안중근은 무죄이다. 이상입니다.

⑭ 판사의 최종 판결

판사 1 : 본 사건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피고 안중근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할 목적으로 저격하여 이토 히로부미는 사망, 나머지 수행원들에게는 중상을 입힌 바가 있다. 하지만 안중근은 대한국의 의병 참모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던 중, 하얼빈에서 조선의 자주권, 외교권을 침탈한 이토를 사살하였다. 따라서 안중근은 만국공법상 피고인이 아니고 전쟁포로이다. 만국공법에 따르면 교전중 적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며 정당방위이다. 대한의군참모중장 안중근에 대한 강도혐의는 다른 동지를 보호하기 위한 진술이었으며 그 자금의 출처는 독립운동비로 후원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진짜 죄인인가? 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일본 제국주의이며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한 이토 히로부미이다. 일본제국주의와 그 하수인 이토는 조선을 침략하여 1905년 을사늑약과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군대를 동원하고, 고종황제에게 칼을 겨누면서 옥쇄도 없이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위 두 조약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또한 일제는 아시아지배 야욕에 들떠 아시아의 평화를 해치고 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따라서 본 법정은 위 사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 안중근을 무죄로 판결 한다.

주문 2 : 일본제국주의와 이토 히로부미는 전쟁범죄자로서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을 판결한다.

⑮ 폐정 선언 (재판장)

판사 1 : 이상으로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망치 3번)**
안중근 : 코레아, 우라!!!
청중 : (일제히 만세삼창) 코레아, 우라!!!

❛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모의법정 팀 ❜

10

지식을 지혜로 만드는 길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한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그렇다면 지식이 많다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할까? 그렇지 않다. 다만, 아는 것이 많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에 조금은 수월할 수 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간다. 학생인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루 평균 7과목의 수업을 듣고, 새로운 내용들을 접하고 배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을 지혜로 발전시키지는 못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배운 후 내가 알고 있음에 만족하고 그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의 삶을 연관 지을 때 비로소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내가 배운 단순한 지식은 그것의 존재에서 마무리되지만, 내 삶의 일부분과 만나게 되면 비로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북 간의 관계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한다면 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가 나의 삶에 끼칠 영향을,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우리는 때때로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어 낸다. 학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하다. 무엇인가를 배우면 외우기 급급하고, 그것을 토대로 문제집을 잘 푸는 것에 집중한다. 문제집을 잘 풀어내는 기계를 양성하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 얻는 것이다.

Wisdom is not a product of schooling,

but of the life - long attempt

to acquire it.

- 알버트 아인슈타인 -

평생의 노력이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간접경험을 하든, 직접경험을 하든, '경험'이라는 두 글자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며 바라보는 세상은 비록 내 몸에 생생히 닿는 것이 아니지만 느낄 수는 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인상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면 꺼내 그 때의 느낌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사실 이번 대장정에 참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직접 경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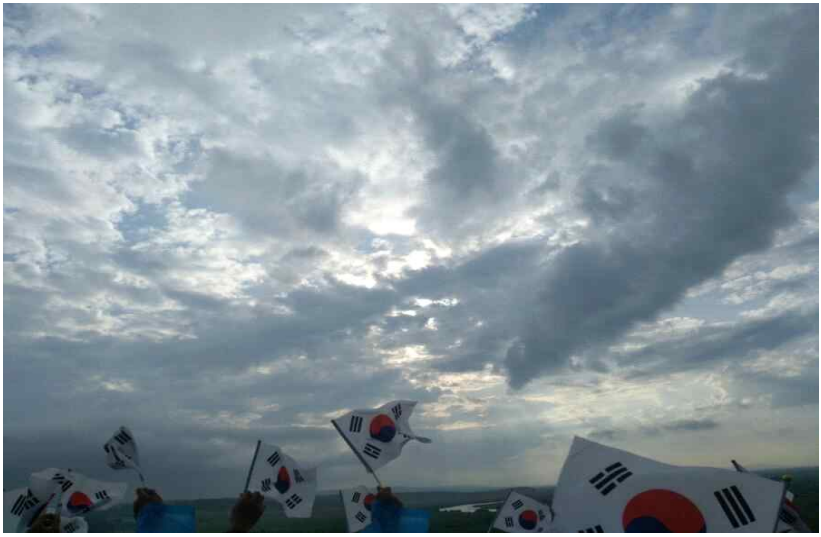
의거한 것이었다. 내가 직접 보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 눈 앞에 존재하는 조형물보다 역사가 펼쳐지는 것 같은 광경을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도 없이 안중근 의사의 업적에 대하여 듣고, 그 위대함을 알고, 그와 관련된 역사의 날에는 기리곤 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 당시 의거의 정신을 떠올린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고, 독립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 계승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 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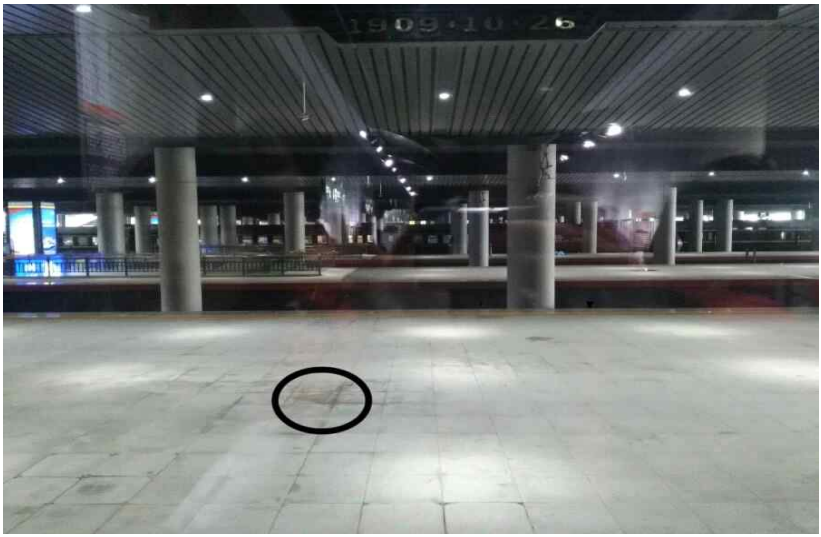
그러나 모의재판을 준비하고, 직접 관동법원에 서 재판을 진행하던 그 날로 인해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독립투사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지금도 떠올리기만 하면 재판 과정 속의 모든 목소리가, 모두가 숨죽여하던 고요함의 공기가 생생히 기억난다. 그리고 이 생생함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쳤고, 어디선가 지혜가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날이다.

사진 _ 중국（中國）

중국에서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을 새겨봅니다.




1909·10·26

反人类暴行
INHUMAN ATROCITIES
Античеловеческое злодейство
侵华日军第七三一部队罪证陈列

전방은 조선이다,비법월경을 엄금한다!
前方为朝境， 严禁非法越界！

11

서러움의 감정

인간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감정이 울음을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러움의 감정으로 인해 터져 나오는 울음이 가장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것 같다.

차마 울음의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나와 함께 많은 친구들이 서러움의 감정을 느꼈던 곳이 바로 압록강 일대의 단교인 것만 같다

는 생각이 든다. 단교, 말 그대로 끊어진 다리이다. 중국과 한반도의 이북 땅을 연결시켜주었던 다리이지만 현재는 끊어진 다리로서 그 절단의 흔적이 너무도 적나라했다. 압록강을 기준으로 아래 사진에 보이는 오른쪽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아 있다. 그와 반대로 왼쪽에는 오른쪽과 비교해 마치 장난감 같이 조그마한 건물들이 셀 수 있을 듯 아주 미미한 숫자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나머지는 온통 초록색 크레파스로 칠해둔 것만 같다.

'만일 한반도가 하나였다면, 이북 땅과 중국의 모습이 이토록 차이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치울 때쯤, 단교 옆의 다리를 지나가는 관광버스 한 대를 보았다. 그리고 그 관광버스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있지 못 했을 것이다. 출국 심사와 입국 심사를 아무리 엄밀하게 진행해도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곳, 북한이기 때문이다.

먼 타국의 땅까지 와서야 마주하는 한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은 버스 한 대로 자유로이 갈 수 있는 곳을 우리는 또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그렇게 나는, 우리는 서러워했다. 신기해했다. 눈앞에 놓인 저 흔하고 흔한 나무들을, 태양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나뭇잎을 신기해했다. 우리는 늘 갈 수 있는 곳보다 갈 수 없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볼 수 없는 것에 흥미를 지니니까. 그 순간 내가 느낀 분단의 현실이었다.

끊어진 단교 위에서 상인들은 '조선 돈'이라 쓰인 북한의 돈을 판매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북한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 돈을 신기하게 여기고 아마 그것을 구입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다. 그 상인들의 주요 판매 대상은 한국인이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존재감을 내비치는 저 이북 땅을 밟을 수 없는 한국인들의 심정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 민족이지만 서로에게 선을 그어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 달라진 서로의 문화를, 체제를 신기하게 여기는 우리들을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단교에 서 있던 그 날,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불었다. 머리카락을 헝클이고, 사진을 찍는데 자꾸만 방해가 되었던 그 바람이 지금 생각해보니 꼭 불편함의 존재가 되려고 자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

다.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저 곳의 공기라도 우리에게 실어다 준 것은 아닐까.

12

견고해지려 감수했던 아픔

나는 단단한 것 같은 느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내재되어있는 아픔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아무에게도 밟히지 않은 고운 땅보다는 비에 젖고, 바람에 깎이는 풍화작용을 거친 땅이 더 단단한 것만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겉에 드러나는 단단함에 사람들은 의지하며 기대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단단함이 때로는 슬프기도 하다. 숨어있는 내면을 알아차리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하루의 대장정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던 길, 고구려 성터를 보았다. 현대화가 진행되며 높아진 건물들 사이에서 고구려 성터는 홀로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았다. 벽돌로 하나 둘 쌓여진 저 담은 역사 도서에서만 보던 모습과도 같아 다른 성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주 조금 남은 고구려 성터의 모습은 주변의 모습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의 구멍 속에 다른 퍼즐 조각을 넣어둔 느낌이 강했던 것이다.

사실 사람도 자신과 너무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다름이 때로는 색다름으로 다가와 즐거움을 안겨다 줄 수도 있겠지만 공감과 동질감이라는 감정 속에서 친밀해짐을 느끼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 많다. 고구려 성터도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아니 대부분이 외로운 시간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내가 본 성터의 모습은 놀랍도록 견고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우리의 역사는 여기에 그대로 존재하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이 곳에 존재하는 성터를 모르고 살아갈 동안, 수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거센 바람을 스치며, 태풍에도 홀로 자신을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지켰을 것이다.

내가 고구려 성터에게 느꼈던 감정은 '미안함'이였던 것 같다. 그리고 감사했다. 자신을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구려의 역사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잊힌다는 것은 꽤나 슬프고 외로운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미는 조그만 손이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긴 시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아픔을 감수하며 버텼을 텐데 타국에서 우리의 역사를 지켰던 성터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견고해지려 감수했던 아픔'의 크기를, 그리고 그 깊이를 잘 헤아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13

별을 헤아리다, 마음을 헤아리다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간 날이었다. 날씨는 화창했고, 생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놀란 기억이 난다. 그 분이 살았던 곳을 가니 그 분의 생애가 알고 싶어졌다. 그 분의 생애를 알고 나니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졌다.

우리가 기억하는 독립투사들은 대부분 조선 침략에 있어 원흉이 되는 사람들을 처단하거나 사람들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하는 모습

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앞서 말한 모습들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셨고, 부끄러움의 감정을 오롯이 시에 담아내셨다.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읽다보면 함께 그 감정에 동화되는 듯하다. 함께 절망하며, 함께 의지를 다지며 극복하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하지는 못했어도 이분들의 생애를, 시를 기억할 수는 있다고 말이다.

'부끄러움'을 담아낸 수많은 시에, 윤동주 시인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부끄러워 마세요." 진심을 담아 한 자 한 자 적어낸 시를 보내본다.

흔들림에 담긴 마음

최예원

문득 쳐다본 창밖에 아침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집니다.

마치 나를 바라보며 우는 듯해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함께 울고 있는 내가 보입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외면하고 돌아서 초 하나를 켭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이 곳에서
거세게 흔들리는 촛불에 또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번에는 내가 울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의 눈물이 보이는 듯합니다.

주변은 고요하지만 거세게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 분의 마음도 마치 그러하게 느껴집니다.

울지 마세요, 부끄러워 마세요.
당신의 한 자 한 자에 받은 용기가
많은 사람을 살아가게 합니다.

닿기를 바라며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나는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이를 오롯이 이해하지는 못 한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이 학교 교실에 앉아 늘 창 밖의 큰 산 하나를 바라보며 시를 쓰던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별 하나에도 의미를 지니게 했던 시, <별 헤는 밤>이 문득 떠오른다. 그리하여 오늘 밤에는 나도 별을 헤아린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마음도 함께 헤아린다.

14

안녕하세요! 용기 내어 건넨 인사

날씨가 흐렸다. 먹구름이 끼어 있고 빗줄기가 조금씩 세졌다. 언제 어떻게 온 몸이 젖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꿉꿉하고 습한 공기 속에서 힘들만도 불편할 만도 한데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웃음이라기보다는 미소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바로 내 눈 앞에 흐르는 강을 건너면 북한이었다. '압록강과 두만

강을 뛰어 건너라.'라는 <신 독립군가>의 가사 한 줄이 떠올랐다. 통일의 염원과 의지를 담은 가사인줄 알았는데 정말 한 끝의 거리였다. 눈앞에는 자갈이 깔려있는 얕은 물이 보이고 중간의 수심은 알 수 없지만 그 깊이가 얼마이든 정말로 뛰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아주 짧은 거리. 그 거리 때문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치 않게 했다.

그렇게 실감이라는 묘한 감정 사이에서 내면이 갈등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보았다. 저 건너편에서 얕은 압록강을 찬찬히 걸으며 물고기를 잡는 듯했다. 처음 본 사람이었다. 하지만 반가웠다. 반가운 마음에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과 함께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낯선 사람과도 흔히 말할 수 있는 5글자이지만 이 날은 유난히도 용기가 필요했다.

아마도 나는 그 사람의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번 외치자 그 분의 팔에 자그마한 움직임이 보였다.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을 법한 격동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그 잔잔함이 오히려 큰 감동을 안겨다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냇가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친구들이 말했다. "나는 저 아저씨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게 소원이야!" 이 말은 곧 "내 소원은 통일이야." 와도 같이 들렸다.

금방이라도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우리는 닿지 못했고, 낯선 사람이지만 반가워했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보고, 들었으며 한 민족의 정겨움 또한 느꼈다. 소통한 그 순간은 통일의 희망을 본 것이라 생각했다.

'평소처럼 냇가에 나오신 걸까?', ' 물에 발 한 번 담그러 오셨을까?', ' 물고기를 잡으러 오셨을까?' 수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가장 궁금함과 동시에 바란 한 가지,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던 그 분도 그 날 그 순간을 통해 잠시나마 통일을 간절히 바라셨기를.

15

2/100의 기회

2/100, 즉 2%의 확률,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 백두산에 간 날, 처음 알게 되었다. 백두산이 '백' 번 중 '두' 번 천지를 볼 수 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는 속설을. 이렇게 희박한 확률 속에서 천지를 본다는 것은 삼 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백두산에 오르기 전,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백

두산 천지를 촬영한 사진 중 기포가 찍혀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한 어느 글을 보고 걱정이 앞섰다. 기대보단 걱정을 앞세우고 올라간 백두산이라 그랬을까, 내가 본 천지는 정말 아름다웠다. 천지를 찍은 한 장의 사진은 마치 블라인드를 걸어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만큼 한 폭의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했다. 흔들림 없는 물살과 조금은 탁한 푸른색을 띄고 있는 천지와 그 주위를 둘러싼 거대한 산맥들이 더욱 그런 느낌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백두산에서 내려오고 나서야 알았다. 천지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군다나 백두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 한 번에 보는 일은 더욱 흔치 않음을 말이다. 사람 마음이란 것이 참 이상하다. 지금 내 눈 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천지지만 볼 수 있는 기회의 희소성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각별하게 느껴졌다. 그리움을 담아 눈을 감으면 그 때 그 순간의 장면이 다시 선명하게 피어났다.

올라갈 때는 앞뒤로 꽉 찬 사람들에 밀려 주변을 둘러볼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내 발걸음이 한 발짝 두 발짝 내딛기에 바쁜 것만 느낄 수 있었다. 다리는 아파오고 숨은 차지만 멈출 수 없는 몸으로 인해 어서 도착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1초, 10초, 10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은 달랐다. 내가 올라왔던 길을 바라보며 힘들어했던 내가 보였고, 피부를 스치는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온통 푸른 나무로 가득할 것 같은 산의 이미지와는 달리 백두산의 꼭대기를 향하는 길 전부가 그저 자잘한 잔디가 깔려있는 듯 초원 느낌을 주었는데, 그 허전함도 내려가는 길목에서야 오롯이 체감했다. 그 허전함은 공허함보다는 왠지 모를 공포심을 안겨다 주었다.

사실 그 날 내가 보았던 백두산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었지만, 이후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들려오는 말에만 간간히 고개를 주억거리며 '그렇구나.' 하고 흘려듣는 것은 나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보았던 푸른 천지와 그 건너편에 있었을 북한을 떠올리면 다르다. 그들의 존재를 스스로 검색하여 찾아보고, 잘 지내긴 하는지 자꾸만 기울이게 되는 관심이 바로 그 차이다.

'언젠가'라는 막연한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확실한 한반도의 미래에 꼭 맞는 옷이 되어줄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언젠가 3.8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태어나 단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땅을 밟아 다른 방향으로 백두산을 오르고, 처음 천지를 보았던 그 날의 나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꼭 나에게 잘 지냈다고 인사 건네주길 바란다.

16

작지만, 가장 커다란 나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시던 곳이 있었다. 그 중 큰 소나무 한 그루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곳에 간 날이었다. 당시 일본군이 이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의 목적을 눈치 채고 깊은 뿌리를 뽑아 더 이상 그 곳에 어떠한 나무도 자라지 못하도록 화학 약품 처리까지 진행했다. 다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새로이 심어보려는 수많은 노력과 손길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볼 수 없었다.

당시 독립운동가분들에게는 그 큰 소나무가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 감히 유추해본다. 항상 같은 자리에 변치 않고 있어주던 소나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라지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그 심정을 어찌 표현하리.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독립의 희망을 붙들던 바로 옆의 동지가 하루에도 수 백 번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내야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익숙해질 수 없는 일에 점차 울분이 쌓여갔을 것이다. 그 순간들 속, 다시 자라나지 않는 나무 한 그루는 애써 희망을 노래하고, 독립의 의지를 다짐하던 이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이 날 그곳에서 우리는 소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그곳에 자라난 한 그루의 나무는 작고 작았지만, 그 어떤 나무보다도 커다랬다. '어쩌면 독립운동가분들의 정신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한 그루의 나무로 피어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곳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평소에는 믿지 않는 운명론적의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다.

그렇게 그 나무를 한참동안 바라만 보고 있었다.

17

우리 다시 만나

많은 영화에서는 조선족을 사회의 불만세력으로 그려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조선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 불안함, 무서움, 매서움 등이 담겨있다. 만약 내가 이들과 달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난 조선족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다지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인식에, 편협한 사고에 동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기분이 상할 것이다, 억울해 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비행청소년이 되는 일부 아이들로 인하여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함께 손가락질 받는다면 더더욱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조선족에게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다른 조선족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말이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조선족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한국이 아닌 타국, 중국에서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 수줍어했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 절대 친해지지 못할 것 같았던 잠시 동안의 생각은 함께 하는 활동으로 금세 깨져 사라지고 말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K-pop을 조선족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이 또한 나의 잘못된 사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조선족 친구들은 함께 한 대장정의 친구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이를 바라보니 참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함께 음악을 즐기며, 서로에게 빠져있는 분위기에 취해드는 그 순간들은 영락없이 풋풋한 지금 나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던 조선족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쩌면 우리는 조선족 한 명 한 명을 그 자체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선족'이라는 틀을 만들어 두고, 잘못된 이미지를 생성해내며 우리의 생각을 그 좁은 곳에 끼워 맞추고 있었다. 자꾸만 끼워 맞추는 그 압박감에 누군가는 눌려 고통 받는 것을 외면한 채.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틀은 편견으로 이어진다. 친구들을 만나 내가 보았던 모든 것들은 그 틀 안에 넣을 수 없었던 것들로 가득했고, 이를 느끼며 나는 생각했다. 편협한 사고들은 부족한 지식으로부터, 상대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됨을 말이다.

이런 생각들의 도돌이표를 마치고 준비한 합창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나는 온 진심을 다해 불렀다. 가사 하나 하나가 마음 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꼭, 다시 만나.

아름다운 나라

신문희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 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 골목 선 담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흰 빛이 센 바람도 재우니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강 물빛소리 산 낙엽소리
천지 사방이 고우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 꽃 소리 들풀 젖는 소리

아픈 청춘도 고우니 맘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로 견뎌 낸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맘으로 푸르다

푸르게 더 푸르게 수 만 잎을 피워 내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

18

안중근 의사님께 닿기를

안중근 의사님께 보내는 편지,

저는 독립의 기억을 걷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이 이토를 처단하고 동양의 평화를 구하기 위해 향하셨던 하얼빈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요. 같은 곳에 서서 그 때 그 시대로 돌아가 심정을 헤아려 보려 하지만 감히 짐작도 할 수 없겠지요.

의사님을 기리는 비에 갔습니다. '1909년 3월 5일경 12인이 모이다'라는 글귀와 약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있는 왼손의 흔적을 새겨 둔 비였습니다. 12명의 동지와 함께 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고 약지

한 마디를 잘라내는 것보다 일제에 뺏긴 조국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우셨겠지요.

하얼빈 역으로 향하시는 발걸음에 담긴 고뇌를, 그리고 굳은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에 도착한 이토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시는 마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총알 하나에 조국의 독립에 대한 간절함, 총알 하나에 자신이 쏘는 사람이 이토가 맞기를 바라는 간절함, 총알 하나에 동양의 평화를 위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러봅니다. 만약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 목소리가 닿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나의 뼈를 고국에 반장해 다오.'라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아직까지도 이루어 드리지 못해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독립을 위해 자신의 희생도 기꺼이 하셨던 의사님에게 분단이라는 죄를 지은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는 영웅의 왕관을 들고 법정을 자랑스럽게 떠났다.'고 기억된 우리의 위인, 안중근 의사님, 지켜주신 소중한 평화를 이제는 저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독립된 나라에서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오롯이 새겨 기억하고, 끊임없이 귓가에 맴도는 신호탄으로 만들겠습니다.

19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실 잘 가늠이 가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조선족'과 '고려인'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했던 나였다. 사회적 소수자 중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인권은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정작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그들의 인권은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어찌 짐작할 수 있었을까.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찾아간 날이었다. '고향 마을'이라 부르는 고려인 마을이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한 데 모여 한국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러시아의 땅까지 가 직접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든 분은 한국의 한 여성 분이셨다. 이분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새겨듣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피어올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생각의 무게들은 꽤나 무거워 마음 속 깊이 가라앉았다.

고려인 마을에 가서야, 즉 먼 타국까지 가서야 고려인을 이해한 나를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많은 고려인이 살고 있었다. 남한에 존재하는 고려인만 해도 고려인 마을에 거주하는 수를 훨씬 뛰어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나는, 우리는 왜 모르고 살아가는가?

'고려인'이라는 사실은 차별이라는 폭력의 굴레에 가둬둘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을까. 이런 사회를 주도한 사람도, 방관한 사람도 모두 죄인이었다.

고려인들은 본인들의 마음 깊은 속 고향인 한반도에 가고 싶어 한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한반도의 땅에 발을 디뎌도 자신을 감싸주는 것은 따뜻한 품이 아니었다. 동정 어린 시선, '다름'을 넘어 '틀림'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득 찬 세상은 그들에게 마음 속 남은 희망을 무너뜨려버린 지옥과도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들을 마주쳤을지 마주치지 않았을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혹시나 그들에게 지옥을 안겨다 준 사람이 된 적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났다.

'한국인이 좋아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도 고려인들과만 어울리는 걸요.' 이 한 마디 한 마디를 내뱉은 사람은 다름 아닌 고려인이다. 그들이 바라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아니, 확신할 수도 없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미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한 민족끼리도 서로 다르다고 차별하며 살아간다. 때때로는 그들이 '틀린'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함께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가 어떻게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 너무나도 달라져버린 체제와 문화 속에

서 살아간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도태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지금 당장 사회의 문제점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본인을 그 구성원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나도 변화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한다.

고려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늘 따뜻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분의 얘기를 들으며 단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마음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 기로에는 한 마디가 존재했다. "고려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모든 뇌 회로가 정지된 듯 멍해졌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저 한 마디가 아니었다면 결국 또 잊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다. 나는,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최대의 폭력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관심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내가 본 고려인들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내며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로서 잘 살고 있었다. 함께 문화 교류를 했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한다.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당찼고, 열정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20

물을 주는 가장 적절한 시기

식물에게 물을 주는 데에는 늘 적당한 시기가 존재한다. 토양이 마르고, 식물의 잎이 시들어 고개를 숙일 때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물을 기울여도 좋지 않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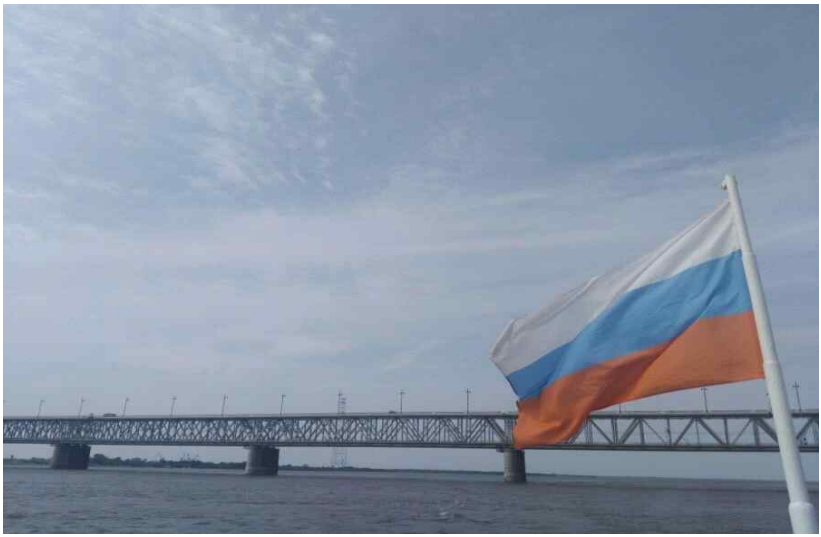
생각의 샘이 말라버릴 때까지 발길이 닿지 않아서도 안 되고, 너무 과다한 외부의 생각만을 흡수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온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 이상의 양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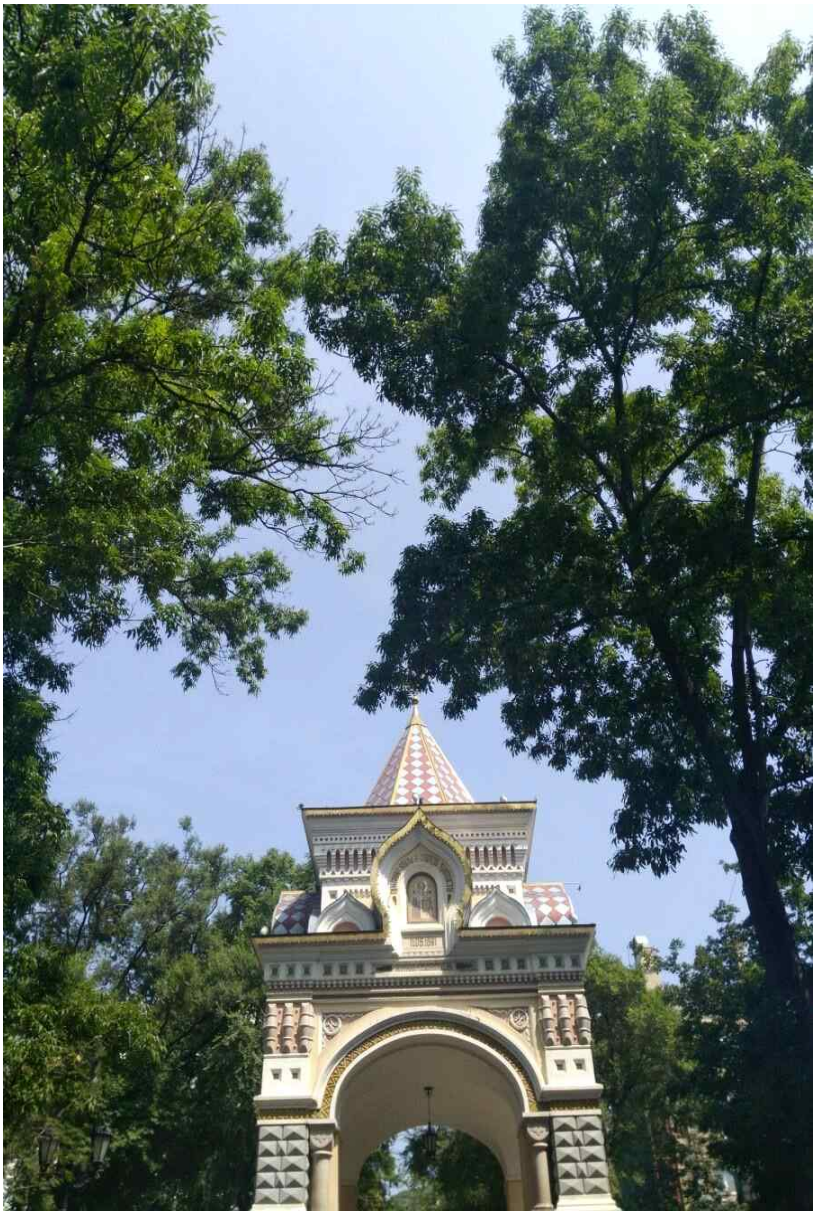
주게 되면 식물도 죽기 마련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을 받아들이고 저 높이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활동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이든 피워낼 수 있는, 잘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도 같다. 이 토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정성스런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도에 도달할 때쯤이면 높이 향하려는 나의 에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모든 것을 알려 하지 말고, 너무 자주 알려 하지 말자. 다만 내가 받아들인 것이 예쁜 꽃이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빛나는 잎사귀가 되어 찬란한 계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살아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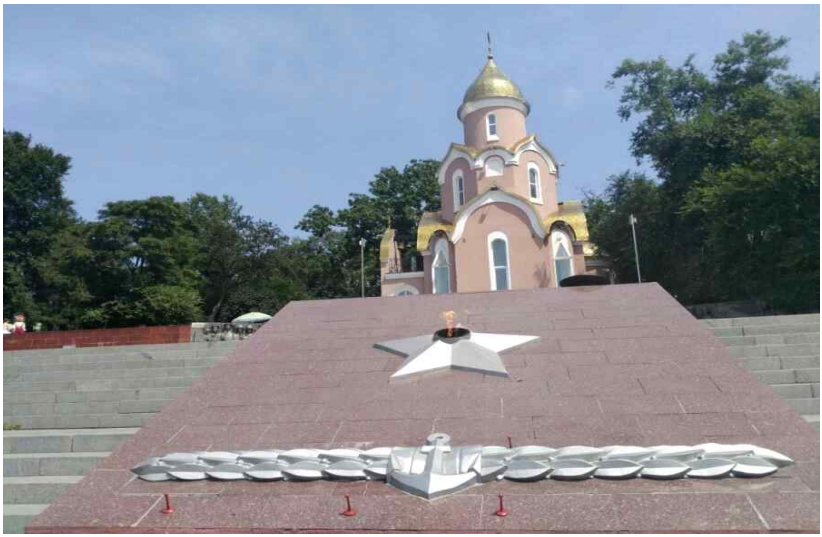
사진 _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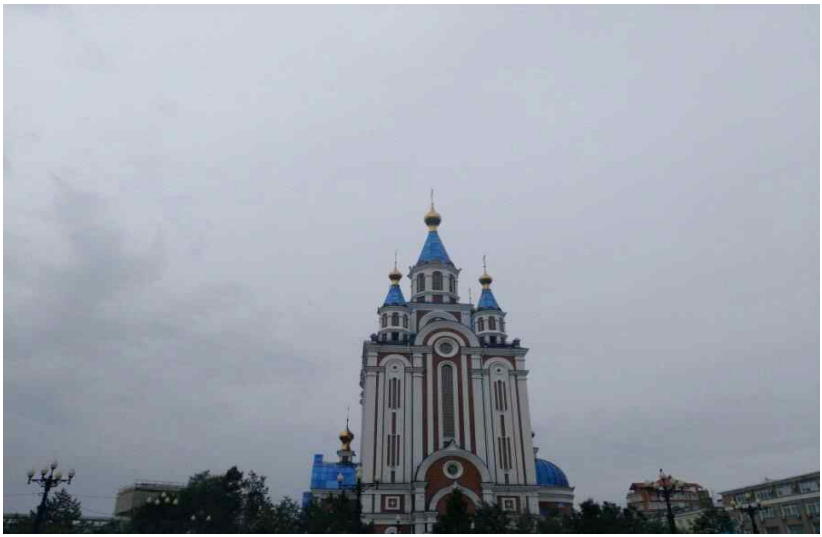
러시아에서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을 새겨봅니다.





독립운동가
Пётр
Семёнович
Цой
최자형





맺음말_

꽃송이를 피워주세요.

글을 맺으려 합니다. 이제 곧 맺히게 될 이 책에게 꽃송이를 피워주세요. 오래도록 지지 않는 꽃을 피워 마음 속 깊이 남겨주세요.

저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던 시간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이 가시지 않는 여운이 되어 끊임없이 마음속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아니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져 버릴 기억의 조각들도 있겠지만 분명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닐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변해가는 자신에 맞추어 그 질문에 다른 답을 내놓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잘 보듬어 주세요. 끊임없이 귓가에 맴도는 신호탄이 되어 일상에 사소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힘이 풀려 주저앉을 때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안겨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질문을 찾아가세요, 성실히 대답해주세요. 마음 속 깊이 묻어두기만 했던 생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솔직해지세요. 스스로의 인생을 가장 위하며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온 몸으로 스치며 따뜻해지는 순간이 올 때, 한없이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_ 저의 순간들을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최*원

지금 무슨 생각해?